

**동우컬럼**

## 목회 41년!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는 성탄절이 되면 산타 복장을 하고, 굴이며 과자며 사탕을 잔뜩 넣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듬해인 1985년, 나는 이상 중에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전할 수 없는 이방나라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억압 속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보내니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이 소식을 너는 외쳐 전하라”(겔 3:5~6). 이 말씀을 받은 후, 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스타를 타고, 여관을 전전하면서 전국을 제주 밭듯 돌며 복음을 전했다. 그 후 1990년, 꿈속에 파란 하늘에 성경이 짝 펼쳐지면서 ‘명성(名聲)’이란 두 글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네 명성이 높아지리라’는 그 뜻을 헤아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1991년 9월 19일, 나는 땅끝예수전도단을 설립하여 선교의 기반을 확보한 후에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로 나가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2000년 인도네시아 집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세월이 40년이다. 이렇게 전도의 깊이와 넓이가 점차 커져갔다. 마치 샘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그러나 나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2~14)는 말씀을 붙들고 더욱 전도에 매진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나에게 물으리라. “너는 평생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때 주저함 없이 말하련다. “나는 정말 일생을 주님 뜻대로 살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 뜻대로 살도록 힘쓰시다. 그 날에 반을 삼을 위하여!

**목사님의 성역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23년 7월 12일 수요일예배를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날 88체육관의 통보내용을 전하시며 ‘서울성전건축을 위한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셨었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및 성도들이여! 서울교회가 9월부터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합심기도하며 장소와 땅을 찾아봅시다. 준비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은 40일의 작정기도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의 대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듣고, 자식들은 많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가장의 모습을 생각하며 목사님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다고요. 목사님은 항상 털끝만큼도 걱정되지

그리고 목사님은 교단 전체가 전적으로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자고 선포하시고 노랑진교육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신 후, 2025년 올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는 다 저물어가는데 성전부지에 대한 가시적인 응답은 오지 않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었겠지만 어찌 목사님 마음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이야 있지만, 마음 졸이는 시간들이 어찌 없으셨겠어요? 사회자가 서울교회 예배장소를 광고할 때마다 ‘다음은 어디냐?’고 물으시는 목사님을 보며 그 마음의 일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2월 9일, 성전부지가 계약되었다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다듬어서 보내라는 말씀이

가 시편 126편에 기록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하였도다”(시126:1~2).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 전 대미문의 축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성역 41주년에 즈음하여 긴 광  
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  
로 그 감회가 남다르시겠지만, 또 한편으  
로는 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감당하셔  
야 할 일들로 여전히 어깨가 무거우실 겁  
니다. 성도들에게는 조금의 짐도 지우시  
길 원치 않으시기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  
실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나무가  
자라면 숲을 지키듯이 비록 자식들이 아  
비의 마음만 할 수는 없겠지만, 장성한 자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거야 목사님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고, 어찌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88 체육관과 인천교회를 오가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송  
구영신예배에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주님, 나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이북과 중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성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있었으니 제가 조금 먼저 알게 된 셈이  
긴 합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입니  
다. 물론 서울교회로 치면 1991년부터니  
까 35년이죠. 그 기나긴 시간을 올림픽  
공원에서 강남꽃상가 건물로, 88체육관  
으로 전전하며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하  
루하루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았습니  
까. 드디어 내 집을 갖는 가장으로서 목사님  
의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에 비할 바가 아  
니겠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기도회 때나  
예배 때 만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그냥  
웃음이 번져나오고 있더군요. 시편 기자

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전을 건축  
해갈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베풀 한 장이라고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가길 소  
망하고, 그렇게 대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께 성전을 봉헌할 그 날을 벅찬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에 유념  
하시며 소망하시는 대로 2100년까지 주  
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성역 41주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 한은택 목사



# 성탄절 예배

2025. 12. 25(목)  
오전 10시, 오후 3시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7~20)

# 분노는 행복을 쯔먹는 암적 존재다

2025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던 서울성전 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흥분된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요.

마귀란 놈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놈인지라(겔28:12~15), 그놈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교묘하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절대 직접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심고, 욕망을 자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열매를 따게 합니다.

이 방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 다. 그 방법의 하나가 순간 분노하게 해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다 된 밥을, 다 된 일을 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옆도록 유도합니다. 기도로 받아놓은 응답, 쌓아온 신뢰,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과 과업을 단 한 번의 혈기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

### 자갈밭 좋아하는 나무 없고 분내는 사람 좋아할 자도 없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태풍이 닥친 것과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과일과 곡식이 잘 되고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강력한 태풍이 몰아친다면 그간의 수고와 꿈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혈기는 바로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는 주범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민수가 20장에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리바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는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민20:24). 40년을 공들였는데, 40년을 고생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한 번의 혈기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

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분노는 잔인해서 꼭 죄를 짓게 합니다(잠27:4).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화를 못 이겨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땅의 저주를 받고, 떠도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창4:4~8). 이처럼 분노는 행복과 평화를 빼앗고, 파멸을 몰고 옵니다.

요즘 가인 같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핫김에 뭐 한다고,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니 화가 나서 죽이고, 위층에서 소음 이 많 이

난 다 고 화가 나 죽이고, 외벽 유리창을 뚫는 사람이 노래 틀어서

시끄럽다고 생명줄을 잘라버려 죽이고, 내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다고 죽이고...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5),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난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겔21:4~5)

콜라 같은 성격입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거품이 생겨 확 쏟아버리는 그런 성격입니까? 화가 나거든 잠시 그 상황을 벗어났다가 돌아오세요. 거품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세요. 거품이 잔뜩 찬 콜라병을 바로 따면 웃도 버리고, 주변도 더럽히고, 콜라도 다 쏟아져 먹을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길게 숨을 쉬세요. 절대 핫김에 일을 벌이지는 마세요. 악한

것들이 “나가 싸워.”, “사표 던져.”, “이혼 해버려.” 하며 부추길 것입니다. 이럴 때 콜라를 따면 큰일 납니다.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쯔 전의 일이 별것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노를 제어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콜라를 비워내고 생수를 담은 것입니다. 생수는 흔들어도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수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람만 좋아하나요? 식물도 좋아합니다.

생수로 거듭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 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생수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사도 바울은(행9:1)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을 참고 이겨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참는 것도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할 정도로 혈기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사나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 예수님의 본성은 ‘온유함’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온유’요, ‘오래 참음’이기에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갈5:22~23).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와 함께 다가와 입을 맞추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어 ‘말고’라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 떨어뜨리자 예수님이 그의 귀를 다시 만져 낫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눅22:51).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조차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히12:2). 그래서 결국 승리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옥해서 열두 영의 천사를 불러(마26:53) 그들을 처단하고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내려오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 분노는 내 복을 앗아가는 귀신의 작전이다

목회 초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마음도 식힐 겸 혼자 제주도 에 갔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상념에 잠겨있는데, 거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위에 부딪히니 파도가 자 지러지게 소리를 내고 아파하며 물러가고, 받아친 바위도 눈물을 푹푹 흘렸습니다. 반면에 눈을 돌려 넓은 모래사장을 보니 같은 세찬 파도가 물러와도 모래는 그것을 다 안아 잠재우고 물방울을 만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모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외에 누가 모래 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저는 ‘모래와 파도’를 ‘오 예수여’로 개사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것은 오직 성령충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고(마5:5), 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갈밭은 잡초도 싫어합니다. 버럭버럭 화내는 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을 내면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갑니다. 우리, 온유한 자가 됩시다. 혈기를 내어 받아놓은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0~21).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님 성역 41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듣는다

성역 41주년 축하드립니다

나는 32세에 예수님을 만났다.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동안 38년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느덧 성역 41주년이니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38년을 옆에서 목사님을 따르면서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소한 삶 속에서도 수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중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깨달음, 소확행 몇 가지를 적어보려 한다.

첫째,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과 사석에서 충격을 받은 사건

철모르던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 앞 음식점에서 둘이 식사하던 중에 “목사님, 날마다 귀신만 쫓으시고, 예수님 찬양만 하니까 교회에 맨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드니 이젠 다른 복음송도 좀 하시고, 다른 설교도 좀 하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들었다.” 하시기에 반복해서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더니, 정색을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너 공부 많이 했지? 네가 나가서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 모아서 목회하렴.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하라고 보낸 사람이야.” 하시는데, 가슴을 비수로 찢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 생각을 뜯어고쳤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둘째, 우리 집마다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이 집을 팔라며 찾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네 형이 예수에 미쳐 재산 다 팔아먹었는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려고 하느냐?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판다.” 하셔서 목사님께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목사님께서 두 말도 안 하시고 “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성전으로 쓰

신다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교회 지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매도하라.”고 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도 모르게 ‘아~ 멋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다’ 하고, 마침내 집을 팔아 지금은 시온교회라는 제법 큰 교회가 우리 집터에 들어서 있는 것을 오가며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셋째, 내가 낙지를 먹지 못할 때 있었던 일

이상하게 낙지만 먹으면 얹혀서 밤새 고생하던 때가 지난 10여 년간 있었다. 심할 때는 식사할 때 낙지를 보기만 해도, 어떨 때는 누가 낙지 얘기만 해도 얹혀서 집에 와 밤새 고생했다.

어느 날 온 가족을 목사님 댁에 초청해서서 정원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낙지볶음 요리가 상마다 한 접시씩 나오게 되었다. 먼저 목사님 앞에 한 접시를 갖다 놓자마자 맞은편 내 옆에 앉아

있던 아내가 “목사님, 호은 아빠는 낙지를 보기만 해도 얹힌대요.” 했다. 내 예상으로는 “이놈아, 목사가 그런 걸 가리냐? 기도하고 먹어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을 앞으로 구부려 얼른 두 팔로 낙지 접시를 감싸 안으시더니 내가 불세라 조심스럽게 상 밑으로 끌어내어 내가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한 존경심에 울컥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씹씹이에 큰 감동을 받았고 크게 깨달았다. 이젠 나도 남을 무시하거나 뭐라하기 전에 일단 배려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다.

사사로운 자리에서 보여주신 선한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들은 단상에서 포효하며 외치시는 말씀 못지않게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목사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목사님, 성역 41주년 축하드리며,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습관 따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런저런 잡생각이 떠다녔고, 눈으로는 화면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피를 토하는 간절함으로 불같이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음성에서 강한 확신과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41년. 아직 마흔이 안된 저에겐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랬듯이 수많은 설교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듯이,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신 목사님 역시 41년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당당히 외치시며, 당신을 통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교단의 초창기 시절에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는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던 우

스갯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은 총회장 목사님을 만난 순간 이미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문(百聞)이 불어일견(不如一見), 이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목사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1년간 변함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꼭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의 바램처럼 하늘로 들리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전도사 직분을 받고 지금껏 매주 교구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주제로 설교해도 총회장 목사님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인내든, 순종이든, 지혜든 이제껏 단 한 번도 목사님을 말하기에 껄끄러웠던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받길 원한다’는 목사님의 고백과 설교는 그분의 삶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2100년까지 지구촌을 예수중심으로 이끌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호민 전도사



헌신과 책임의 리더십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이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증된 드론의 효과, 인공위성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이 지역적 분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규모 전쟁의 위험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곳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6년 전 총회장 목사님을 처음 만나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모든 것이 생소한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배를 통해 꾸준히 목사님을 뵈어왔으나, 근접 거리에서 접할 기회는 해외집회 수행이나 외국 손님 방문 시에 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 능력과 믿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본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첫째,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본토와 가족, 심지어 그들의 재산까지도 누구의 간섭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의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결단을 넘어, 혁명가의 자세라기보다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임하기 전에 보였던 결연한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항구여일한 인애(仁愛)의 삶을 실천해오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경을 극복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목사님께서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늘까지 지속해오고 계십니다.

셋째,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책임에 대하여 언제나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인은 구성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최고경영자가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오셨으며, 성전 건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상황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실 때는 진심 어린 기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명용사와 학도병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일심동체의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윤석



## 삶의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방향과 깊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이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삶의 지침을 배우고, 친구를 통해 관계를 배운다. 스승을 만나 삶의 길을 익히고, 배우자를 만나 살아갈 힘을 얻으며, 자녀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알게 된다.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삶은 복된 방향으로 자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은 인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마치 꽃 가운데 있으면 향기가 스며들고, 썩은 곳에 있으면 악취가 배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말씀하고 있다.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은 은혜이며,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만남들이 우리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믿는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나는 교회 분위기에 익숙한 편이었다. 주일예배와 각종 예배, 수련회 등 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

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 중고 등부 수련회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도 했고, 어른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익숙함에 머물렀던 신앙이었다. 1990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참석한 대구 목요철야예배에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처음 경험하는 철야예배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속 이야기로만 알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어 길을 비추었으며, 절망의 순간마다 소망이 되어 주었다. 목사님을 통한 말씀의 만남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며 깊은 감사의 제목이다. 이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때 사담으로 인해 실족하여 신앙을 멀리했던 아버지 역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셨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

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매 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 결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된 만남’이란 무엇일까? 나는 함께할수록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그런 분이 바로 이초석 목사님이셨다. 이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함께할수록 복음이 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이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역 41주년을 지나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말씀으로 권면해주세요. 100주년까지요. 꼭이요. ^^

권정미

### 혼자만의 그리움

나 혼자만이 당신과 처음 만나던  
옛날을 생각하다 잠이 들고  
나 혼자만이 당신과 사랑을 나누던  
추억을 생각하다 잠이 들고 깨고를  
반복하는 밤은 왜 이다지도 긴지요  
새벽닭 울리며 여명이여 어서 오라  
내가 왔어요 내가  
문 열어주소

어서 나오시오 함께 감시다  
당신이 그리도 그리던 천국으로 함께 감시다  
이 기쁜 소리만 오늘도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다오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목화꽃 당신, 예수여  
봉우 이초석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다른 빛으로 물든다. 거리의 불빛, 익숙한 캐럴,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의 공기가 우리를 멈추게 한다. 바쁜 삶 속에서도 이 시기만큼은 많은 이들이 마음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성탄은 조금 다르게 맞이하고 싶다.” 이 소망 자체가 이미 성탄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탄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다가온다. 누군가는 기대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이 계절을 맞이한다. 그러나 성탄의 기쁜 소식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은 부담이 아니라 초대이며, 조건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깊은 위로를 준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작

은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는 실패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다. 성탄의 밤은 어둠이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켜졌다. 이 빛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성탄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장년에게는 책임과 수고의 시간 속에서도 헛되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노년에게는 지나온 시간과 남은 날들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동행을 떠올리게 한다. 성탄은 세대를 나누지 않고, 모든 인생의 시간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방문이다. 이 성탄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사회를 향한 시선으로 확장된다. 성탄은 혼자만의 위로로 머무르지 않고, 함께 나누어질 때 더 깊어진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행동 속에서

성탄의 빛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는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기다려주며,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성탄의 연장이 된다. 성탄은 단지 하루의 기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올해 성탄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성탄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빛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 삶을 밝히고 있다.

이정금 전도사

:: 귀를 기울이세요 ::

### 성탄절 알리기 전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젊음의 거리 홍대 한복판에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알리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 14일 서울 청년부에서 ‘예수님 생일 알리기 이벤트 전도’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겨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시어 많은 인파가 그곳에 밀집했다. 젊음의 메카 홍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젊은이들도 많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영어 등 각 나라말로 따로 피켓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리며,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렸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평화를 선물한 것이다. 그럼에도 요즘 시대에 성탄의 본질이 잊혀버렸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보다는 산타가 더 부각되고, 연말을 겸하여 흥청망청 기분이나 내는 쾌락의 축제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세속적인 축일이 되었다. 마치 주인공은 빠진 채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에 청년부에서는 ‘예수님 생일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시민들에게 성탄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본받아 각 나라말로 성탄의 참 의미를 알렸다. 크리스마스 쿠키, 키팅, 사탕 꾸러미 등 선물도 준비하여 거리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이런 전도는 처음 봤다고 반가워했고, 많은 이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 예수님을 찬양하였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구유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가장 빛나고 영광된 자리에 계신 분임에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2월 25일 성탄절,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참 예배를 드려보자.

송현혜 생도

### Merry Christmas!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이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시니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0~11)